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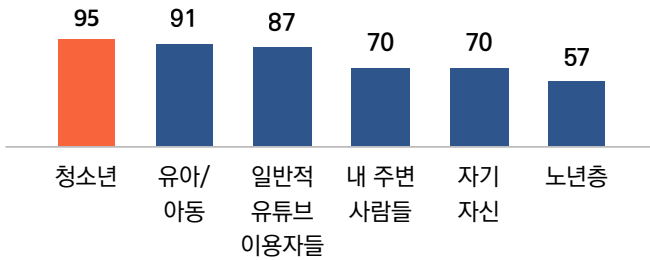
유튜버에 대한 인식



유튜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룹, '초등학생' 95%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유튜브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튜브 이용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유튜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 '초등학생'(95%)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는 '유아/아동' 91%, '일반적 유튜브 이용자들' 87% 등 순이었다. 이는 보고 듣는 것을 스폰지 처럼 흡수하는 성장기 청소년과 어린 아동들에게 유튜버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유튜버가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크다' 응답률(이용자별)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이슈 7권 1호,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브에 대한 인식', 2021.2.23. (전국 20~60대, 유튜브 이용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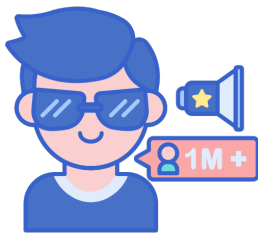
**'영향력 크다'는 '매우+약간', '우려스럽다'는 '매우+약간', '긍정적'은 '매우+약간' 수치임

● 유튜버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 상위권 차지, 국민의 72%가 '우려스럽다'

- 이처럼 유튜버가 초등학생 영향력이 1위였지만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결과 초등학생 희망 직업에 '유튜버'가 2018년 5위, 2019년 3위, 2020년 4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튜버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 상위권에 오른 것에 대해 국민의 72%가 '우려스럽다'고 응답해 높은 우려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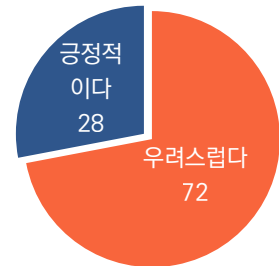
[그림] 초등학생 희망 직업* (%)

유튜버 순위



2018년 5위
2019년 3위
2020년 4위

[그림] 유튜버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 상위권에 오른 것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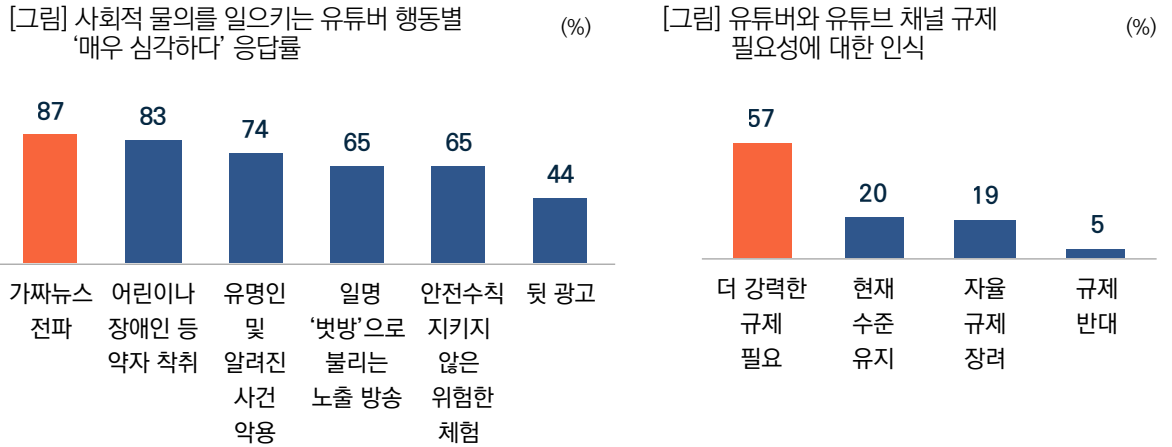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2020.2.24.(전국 초·중 고 1,200개 학교 학생 23,223명, 온라인 조사, 2020.7.15.-10.15)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이슈 7권 1호,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브에 대한 인식', 2021.2.23.(전국 20~60대, 유튜브 이용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2.3.-9)

***'우려스럽다'는 '매우+약간' 수치임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유튜버 행동, ‘가짜뉴스 전파, 매우 심각하다’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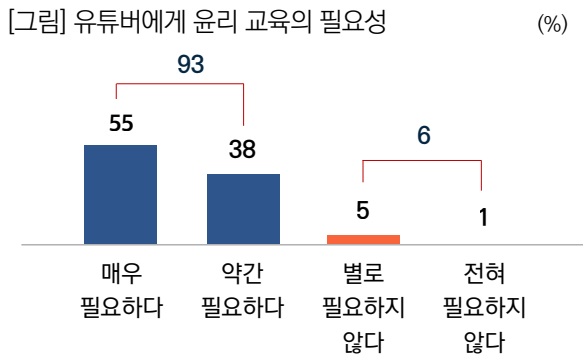
- 유튜버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알아보고자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심각성을 질문했는데, ‘가짜뉴스 전파’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 비율이 87%로 가장 높았다.
- 이와 관련해서 유튜버 또는 채널에 대해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57%)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이슈 7권 1호,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2021.2.23.(전국 20~60대, 유튜브 이용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2.3.~9)

● 국민의 절대 다수(93%), 유튜버 윤리 교육 ‘필요하다!’

- 이러한 성장기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유튜버에 대한 윤리 의식이 필요한 것이 자명한데, 유튜버의 윤리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절대 다수(93%)가 ‘필요하다’(매우+약간)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 절반 이상(55%)이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만큼 현재 유튜브 현장에 윤리 의식 결여에 따른 문제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이슈 7권 1호,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2021.2.23.(전국 20~60대, 유튜브 이용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2.3.~9)